

#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의미 재고(再考) II

황병익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고전시가 전공  
hwangbi@ks.ac.kr

I. 머리말

II. 〈도산십이곡〉의 구절 풀이

III. 〈도산십이곡〉의 의미와 성격

IV. 맺음말

## I. 머리말

그동안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전6곡 언지(言志)는 자연에 묻혀 사는 뜻, 즉 천석고황(泉石膏肓)의 은거생활을 노래하고, 후6곡 언학(言學)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성정(性情)을 바로잡는 일을 읊었다는 해설<sup>1)</sup>이 주를 이루었다. <도산십이곡>은 “벼슬을 버리고 도산에 들어 자연 속에서 펼치고자 한 퇴계의 꿈을 담은 작품”<sup>2)</sup>으로, 언지는 도산으로 물러나 자연과 교감하면서 느끼는 자신의 감회와 뜻을 담고, 언학은 도산서당을 짓고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려는 뜻을 담았다고 보는 견해도 그에 가깝다.

<도산십이곡>은 매우 비중이 높은 시가 작품인데도 여전히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검증해야 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동안은 퇴계의 사상과 연관하여 추상적인 풀이에 그친 경우가 많다. 이에 <도산십이곡>의 구절구절을 실증적으로 다시 읽어 중등교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산업에 까지 두루 적용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도산십이곡> 전후6곡<sup>3)</sup> 가운데 여전히 심화 고찰이나 재론의 여지가 있는, 시가의 구절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디흐료”, “이듬에 브라는 이른 허므리나 업고자”, “고인(古人)를 묻 봐도 녀던 길 알피 잇닉” 등을 『퇴계집』 각 권이나 여타 문헌을 참고하여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풀이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작품에 대입하여 각 장의 유기적 관계를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전후6곡의 주제를 재점검하고 <도산십이곡> 전체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II. <도산십이곡>의 구절 풀이

### 1.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디흐료”(言志1)

‘이런들’은 “초야우생(草野愚生)의 삶 - 이러타 - 천석고황”으로 연결되

1) 국어국문학 편찬위원회 편, 『國語國文學資料辭典』(한국사전연구사, 1995), 791쪽; 정경섭 편, 『고전문학의 이해와 감상 1 - 시가』(문원각, 2003), 169쪽.

2) 성기욱

3) 이 글은 「<도산십이곡>의 의미 재고」, 『古詩歌研究』 29(한국고시기문학회, 2012) 359-391쪽의 2부 논의이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도산십이곡>은 李滉, 陶山詩(陶山書院, 1578)에 따른다.

면서 ‘더런들’로 표현한 삶과 변별된다. 이 구절은 강호에 묻혀 사는 은자의 삶으로,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즐기고 스스로의 인격을 수양하는 삶을 고치지 않고 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sup>4)</sup> 초장의 ‘이런들 엇다흐며’는 중장의 ‘이러타 엇더흐료’와 같은 맥락으로, 초야우생이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즐거움을 뜻한다. 이에 “퇴계는 늘 구속을 싫어하고, 방탕에 기우는 사슴(士翫)을 걱정했던 사람이다. 선비가 절조(節操) 없이 권세에 영합하는 것을 실신(失身)이라 여겼다. 이 노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진퇴양난의 번롱(樊籠)에서 벗어나 이제 산야에서, 자칫 행적이 어긋난 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는<sup>5)</sup> 해설이 적절하다.

(1) 도의와 벼슬 중에서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며,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가벼운 것입니까? 이치로써 말하면 어찌 도의만 귀하고 무겁다 하겠습니까? 예로 말한다면 벼슬 지위의 분수를 또한 어찌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옛 선비들은 실로 남의 위세와 지위에 굴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이는 “저편이 자신의 부유함으로써 대한다면 나는 나의 어짐으로써 대하고, 저편이 자신의 벼슬로써 대한다면 나는 나의 의로움으로써 대한다” 하는 것이며, 또 “저편에 있는 것은 모두 내가 하지 않는 것이며, 나에게 있는 것은 모두 옛적부터 내려오는 도”일 따름입니다.<sup>6)</sup>

윗글을 보면, 벼슬과 도의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부유함이나 벼슬살이를 ‘저편’이라 하여 나의 일과 거리를 두고 있다. “관직에 임명되어도 마땅히 받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힘써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 이 또한 하나의 도인가 하옵니다”에서도<sup>7)</sup> 비슷한 관점이 담겼다. 흔히 ‘이곳·이것·이편’ 등은 내가 가깝게 여기는 것을 칭하고, ‘저기·저것·저편’은 심정적으로 거리를 둘 때 사용한다.

4) 정재호, 『한국시조문학론』(태학사, 1999), 93쪽.

5) 한형조, 「幽貞 혹은 유교적 은자의 길」, 『퇴계학보』 111(퇴계학연구원, 2002), 155-156쪽.

6) “且道義之與爵秩 執貴執賤 執重執輕 以理言之 何啻道義之貴重 以禮言之 爵秩之分 亦安可陵之也 古之士 固不屈於人之勢位 然而不過曰彼以其富 我以吾仁 彼以其爵 我以吾義 曰在彼者 皆我所不爲 在我者 皆古之道也云爾。”李滉,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 丁巳 郡守金慶言」, 『退溪集』 卷12; 『韓國文集叢刊』(이하 『文叢』) 29, 343쪽. 이하에서 인용한 『퇴계집』은 퇴계학연구원에서 간행한 국역 『퇴계전서』를 근간으로, 『文叢』 29·30·31권을 아울러 대조하여 기술상 필요한 경우 부분 수정하였다.

7) “命官有不當受者 力辭不出 是或一道也.”李滉, 「答洪相國退之」, 『退溪集』 卷9; 『文叢』 29, 272쪽.

(2) 선생은 성품과 도량이 따뜻해 옥같이 순수했으며, 성리학에 뜻을 두었다.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했으나 즐기지는 않았다. 을사사화 때 병조판서 이기(李己)가 (선생은) 시기하여 임금께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하였다. 선생이 억울한 죄를 썼다고 여럿이서 말하자 이기가 다시 관직 회복을 주청했다. 선생은 무리들이 어지러이 권력을 잡는 것을 보고 더욱 벼슬에 나갈 뜻이 없어져 관직에 임명되어도 거둬 고사하였다.<sup>8)</sup>

(3) “돌아보면 내 나이 43세에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물러나려 했으니 벌써 25년이나 되었습니다만, 그간 행실은 돈독하지 못하고 성실은 지극하지 못하여 거의 상하의 신임을 얻지 못하였습니다”에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꺼리어 항상 물러나 있는 것은 대우(大愚), 극병(劇病), 허명(虛名), 오온(誤恩) 등의 네 가지 곤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sup>9)</sup>

(2)에는 퇴계가 을사사화(1545) 이후 무리들이 어지러이 권력을 잡는 것을 보고 벼슬에 나아갈 뜻이 없어 관직을 거둬 고사했다 했고, (3)에는 퇴계가 스스로의 인생을 돌이켜 보며 43세(1543)에 물러날 생각을 가졌다고 했는데, <퇴계선생언행통술(退溪先生言行通述)>에도 이와 같이 적고 있다.<sup>10)</sup> 물러나고자 하는 퇴계의 뜻은 이때부터 노년까지 계속되었다.

1558년, 윤원형(尹元衡)이 권력을 잡고 조정을 어지럽히는 가운데 벼슬이 내려지니 퇴계는 벼슬할 때가 아니라 생각하여 또 고사한다.<sup>11)</sup> “선비가 나아가고 물러남을 잊어버렸고, 벼슬을 그만두는 예법이 무너지 헛된 명예가 쌓이는 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물러날 길을 찾기는 갈수록 어렵도다. 오늘날 진퇴(進退)가 모두 어렵고 비방하는 소리만 태산 같으니 매우 위태롭고 염려스럽다”는<sup>12)</sup> 말은 이 같은 고민을 담고

8) “先生 性度溫醇粹然如玉 志于性理之學 少以科第發身 不樂仕宦 乙巳之難 李芑昂 奏削官爵 人多稱枉 芑還奏復爵 先生見羣奸執柄 尤無立朝之意 拜官多不就.” 李珥, 「遺事」, 『退溪先生言行錄』 卷6; 『退溪全書』 17(퇴계학연구원, 1994), 87쪽(이하 『退溪先生言行錄』).

9) “顧滉自年四十三歲時 已見得此意而圖退 至今二十有五年矣 行不孚誠不至 尙不爲上下之所信許.”, “大愚也 劇病也 虛名也 誤恩也 [...] 滉之不樂仕常退身 豈有他哉 凡以爲四叢所困 二患所迫故耳.” 李滉, 「答奇明彥 丁卯九月二十一日」, 『退溪集』 卷17; 『文叢』 29, 448쪽.

10) “先生本少宦情 [...] 自癸卯始決退休之志 是時先生 年蓋四十三矣 自是以後一意退歸 雖累被召還 常不久於朝.” 鄭惟一, 「退溪先生言行通述」, 『文峯先生文集』 卷4, 雜著.

11) “戊午赴召時 尹元衡當國 方濁亂朝廷 有史官 譏其出處 蓋不知先生心事也 初明廟召命累下 而猶堅辭者 正以時不可出也 徵召漸峻 至有以予不足與有爲云云之教 先生聞命瞿然 馳馳詣闕 非其心也 故除大司成工曹參判 而未嘗爲供職言 在都五朔 多在散秩.” 金誠一, 「出處」, 『退溪先生言行錄』 卷3; 『退溪全書』 17(퇴계학연구원, 1994) 39쪽.

12) “士忘去就 禮廢致仕 虛名之累 愈久愈甚 求退之路 轉行轉險 至於今日 進退兩難 謗議如

있다.

“신 등은 보잘것없는 초야우생으로, 다만 사정에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가난하고 재능이 없고 융통성도 없어 가끔 도에서 벗어난 허황한 논쟁을 일삼았습니다”를 보면<sup>13)</sup>,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디흐료”에 담긴 심정은 퇴계의 글 “사람이 벼슬을 하는 것도 분수 밖의 일은 아니니 하거나 말거나 인연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나같이 어리석고 병들고 늦게 깨달은 사람이 그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고지식하게 생계나 꾸러가 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명성과 이익의 세계에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것이라 먼저 자신을 굳게 지켜서 몸을 욱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도리이다”에<sup>14)</sup> 잘 담겨 있다. “퇴계는 천성적으로 도에 뜻을 두고 학문을 좋아하고 벼슬살이를 즐기지 않았다”는 율곡의 말, 임금께 『성학십도』를 올리면서 “내가 나라의 은혜를 갚는 길은 이것뿐이다”라고 한 것을 보아도 퇴계는 벼슬보다 학문의 길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도산십이곡〉 언지1의 ‘이런들 엇다흐며’는 선비의 삶에서 ‘처(處), 퇴(退), 더런들 엇디흐료’는 ‘출(出), 진(進)’을 의미한다. 학문을 하다가 남은 힘이 있으면 벼슬하고, 벼슬하다가 남은 힘이 있으면 학문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처신하는 절도로 삼아 의리에 만족한 바를 정밀하게 살피야 한다는<sup>15)</sup> 생각과도 일맥상통한다. 학문과 벼슬이란 선비들이 꾸러가야 하는 삶의 두 맥이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이황의 말 가운데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나아갈 만한 경우는 나아가는 것이 공경이고, 나아갈 만하지 않을 경우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 공경이라고 했습니다”<sup>16)</sup>에도 선비의 진퇴(進退)에 대한 퇴계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중장 이후에서는 진퇴에 달관한 듯 보이는 초장에서의 시각이 지속되지 않는다. 우생(愚生)이란 자신을 겸칭함인데, 초야우생이

---

山而危慮極矣.”李滉 著, 崔重錫 譯註, 『答奇正字明彥』, 『自省錄』(國學資料院, 1998), 280쪽.

13) “臣等竊以爲草野愚生 徒守迂滯之見 酸寒腐儒 不識通變之宜 往往狂言妄論.” 朴珪壽, 『請疏儒裁處聯名第二劄子』, 『嘯齋集』 卷6; 『文叢』 312, 415쪽.

14) “人生仕宦 亦非分外事 流行坎止 聊爾隨緣 固不當如患病晚悟者之膠守一隅 爲終身家計也 但聲利海中 易以溺人 最是 能自守不辱身 爲第一義耳.” 李滉, 『答黃仲舉』, 『退溪集』 卷20; 『文叢』 29, 493쪽.

15) “直以夫子學優仕 優之訓 爲處身之節度 而精審於義理之所安.” 李滉 著, 崔重錫 譯註, 『答奇正字明彥』, 『自省錄』(앞의 책), 276쪽.

16) “李滉之言曰 可進而進者 進爲恭 不可進而不進者 不進爲恭.” 『顯宗改修實錄』 卷21, 顯宗 10年(1669) 己酉 8月 17日 丁丑 3번째 기사.

‘이러타 엇더흐료, 천석고황을 고태 르슴흐료’로 이어지면서 물러남을 선호하는 태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즉, 퇴계 자신은 천석고황을 즐기며 살고픈 자세를 굳이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산십이곡> 언지1은 벼슬살이를 하든지 향촌에 머무르든지 상관은 없지만 내 마음만은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혀 사는 일로 경사된다는 솔직한 내심을 드러내고 있다.

## 2. “이똥에 브라는 이른 허므리나 업고자”(言志2)

그간 <도산십이곡> 언지2의 ‘허물’이 뜻하는 바를 언급한 논의는 별로 없다. 퇴계가 바라는 ‘허물없는 삶’은 그저 자연에 묻혀 죄 짓지 않고 살겠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한 때문이리라.

(1) “나는 참으로 소인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에 내가 돌아올 적에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꾸짖는가 하면, 어떤 이는 (나를) 산새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단(異端)으로 배척하기도 했으니, 이는 대개 다시는 나를 사람으로 치지 않겠다는 뜻인데, [...] 나의 처신 또한 어렵습니다. 저는 크게 어리석고, 병이 심하며, 헛되어 명성이 높고, 은명을 잘못 받았습시다. 이 네 가지가 이 한 몸에 모여 있어 서로 팔다리를 끌어당기고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sup>17)</sup>

여기서 퇴계는 자신을 소인이요, 죄인이라 했다. 크게 어리석음, 심한 병, 헛된 명성, 잘못 입은 은명(恩命)의 네 가지를 들면서, 조금이라도 관의 직무를 지키지 못하면 진퇴의 의리에 따라 물러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물러나는 자신을 두고 비웃고 꾸짖으며 산새에까지 비유하고, 이단으로 배척하며 사람으로 치지 않는 듯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문집에도 허물, 죄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2) 고인의 삶은 아득히 볼 수가 없고 / 나의 삶도 역시 외로울 뿐이랴오. [...]

17) “益知混誠小人也 誠罪人也 第於此猶有所不能無怪者 混今茲之歸 舉世嗤罵之 或比於山禽 或斥爲異端 蓋無復齒數於人人之意 [...] 混之處身 其亦難矣 何也 大愚也 劇病也 虛名也 誤恩也 四者叢于身 而掣肘矛盾 互相妨奪.” 李滉, 「答奇明彦 丁卯九月二十一日」, 『退溪集』 卷17; 『文叢』 29, 447-448쪽.

마흔아홉 해 동안 나의 그릇됨을 /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는 지체 않으리. / [...] / 허물이 적어진다면 어찌 힘쓰지 않으리오. / 어진 일 하는 길은 익숙함에 있으리라.<sup>18)</sup>

(3) 지금 신이 소임을 받았으나 죄와 허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에 떠나지 않는다면 여덟 가지 죄에 더해져 아홉 가지가 될 터이니 그 죄가 더욱 커집니다. [...] 벼슬하는 자라도 70까지는 미치지 않았는데, 하물며 소신은 여러 병까지 있는 몸으로 열 달 모자라는 일흔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신이 죄를 얻은 까닭을 살피시고 의를 따르는 길을 열어주시고 덕을 베푸시어 예에 따라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가게 하신다면 저에게 쌓인 허물을 구석까지 씻을 수 있고 깨끗한 조정의 예의엄치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sup>19)</sup>

(2)는 “이태백이 49세에 소동파와 황산곡을 본받아 시를 짓고, 주세붕이 그를 차운해 시를 지었다”는 말을 듣고, 퇴계가 차운한 시의 구절이다.<sup>20)</sup> 고인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허물이 적어지는 길이라 했으니, 고인의 글을 배우고 익히지 않음을 허물이라 했다. “벼슬 않고 두문(杜門)에 은거하면서, 몸소 밭 갈며 농사짓다, 때때로 경서와 사서나 읽으며 허물 적어지기를 꾀하노라”<sup>21)</sup>, “다행히 한가한 틈을 얻어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때는 옛 성현의 마음을 헤아려 어리석은 허물을 고치려 했으나 더욱 알고 꼼꼼하지 못하여 공부에 깊이 빠지지 못했다”<sup>도22)</sup> 같은 의미이다. (3)에서는 주어진 벼슬아치로서 갖가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허물이라 했다. 경연에서 얕은 학문으로 임금님의 지혜를 개발하지 못함, 감기에 걸려 임금님을 모신 강의에 충실하지 못함, 실록을 편찬하는 사국(史局)에 선발되었으나 출근하지 못함, 대제학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함, 이조판서 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함, 갖가지 길흉사에 참석하지 못함, 병을 핑계로 맡겨진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함, 식견과 생각이 모자라 계획한 일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 등을

18) “古人不可見 吾生亦云獨 [...] 四十九年非 知之莫再卜 [...] 寡過胡不勉 夫仁亦在熟.” 李滉, 「石峯寺 效周景遊 次紫極宮感秋詩韻」, 『退溪集』 卷1; 『文叢』 29, 69-70쪽.

19) “今臣受任 而罪戾愆違 一至於此 此而不去 八罪又加成九 而其罪益大 [...] 古之致仕者 不必皆在於七十 況臣百病之身 前去七十 僅有十期乎 伏乞察臣得罪之由 開臣徇義之路 渙發德音 令臣依禮致仕而歸 積愆可洒於微躬 四維無壞於清朝.” 李滉, 「乞致仕歸田劄子 二月二十八日」, 『退溪集』 卷7; 『文叢』 29, 217쪽.

20) “景遊詩敘云 李太白四十九 作紫極感秋詩 其後 蘇黃 皆效之 余夜誦三賢詩 多少感慨 乃次其韻云云.” 李滉, 「答周景遊見寄 2首」, 『退溪集』 卷1; 『文叢』 29, 69쪽.

21) “窮居杜門 躬理耕植 時讀經史 以求寡過.” 胡宏 撰, 『五峰集』 卷2, 與向伯元書.

22) “蹤跡頗乖 其幸得偷間日 無他外撓 欲少料理古人心事 以自迷罔之愆 尤淺露疎率 不知沈晦用工.” 李滉, 「答柳仁仲希春」, 『退溪集』 卷12; 『文叢』 29, 332쪽.

모두 자기 죄와 허물이라 닦았다. 벼슬아치가 공무를 보는 중에 생겨나는 안팎의 모든 흠결을 허물이라 했다.

사람들이 물러나려는 퇴계의 마음을 거짓이라 오해한 일, 신하의 도리와 벼슬아치의 자세를 강조하며 비난한 일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피력했다.<sup>23)</sup> 진실로 남의 현명한 정도를 모르겠거든 기준을 좇고 법도를 따르는 것이 허물을 줄이는 지름길<sup>24)</sup>이라 했는데, 퇴계는 “바라옵건대 신이 미처 죽기 전에 하늘을 속인 죄에서 벗어나, 태평세월을 한가로이 만족하며 허물을 바로잡고 병을 요양하다가 남은 생을 마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라고<sup>25)</sup> 했다. 그러므로 <도산십이곡>의 “연하(煙霞)로 지를 삼고 [...] 이등에 브라는 이른 허브리나 업고자”에는 벼슬아치가 가져야 하는 갖가지 부담에서 벗어나, 성현들이 책에 남긴 뜻을 좇으며 학문세계를 넓혀나가는 것이 허물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는 퇴계의 진심과 다짐이 담겼다.

### 3. “이 등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어 므슴홀고”(言學1)

흔히 풍류(風流)를 동아시아 놀이·예술 문화의 원형으로 보고, 놀이적 요소, 미적 요소, 자연친화적 요소, 자유로움의 추구 등을 본질 요소로 든다.<sup>26)</sup> <도산십이곡>의 풍류는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1) “세 조정에 총애와 보살핌 두터웠고, / 풍류는 일대에 드높았다. / 뜯구름 같은 이름이야 초개와 같지만, / 숲 무성한 자연에서 좋은 일 끝없었네.”<sup>27)</sup>

(2) “새벽엔 서리 기운 높은 산에 감돌고, / 기러기 떼 나는 곳에 조각구름 비꼈도다. / 여태까지 끝짜에서 풍류를 즐기다가 / 고개 돌려 말없이 역참에 기댄다.”<sup>28)</sup>

23) 『명종실록』 13년(1558) 8월 5일.

24) “苟無知人之明 則循規矩蹈繩墨 以求寡過.” 蘇軾, 「擬進士對御試策」, 『東坡全集』 卷45.

25) “庶臣及其未死之前 得免欺天之罪 優游平世 補過守病 以畢餘生 則雖死之日 猶生之年矣.” 李滉, 「戊午辭職疏」, 『退溪集』 卷6; 『文叢』 29, 175쪽.

26) 辛恩卿, 『風流=동아시아 美學의 근원』(보고사, 1999), 67-81쪽.

27) “寵眷三朝厚 風流一代尊 浮名同草芥 勝事極林園.” 李滉, 「知中樞龔巖李先生挽詞 二首」, 『退溪集』 卷2; 『文叢』 29, 89쪽.

28) “一路迢迢接玉京 多山多水儘難行 他鄉到處厭機巧 逆客逢時知物情 霜氣曉侵喬嶽冷 鶻行遙帶片雲橫 向來丘壑風流事 回首無言倚驛亭.” 李滉, 「九月 如京 廿五日 始出險 抵惟新」, 『退溪集』 卷2; 『文叢』 29, 98쪽.

(1)은 퇴계가 농암(農巖) 이현보의 드높은 풍류를 기린 자료인데, 숲 무성한 자연을 오가며 누린 즐거움을 풍류라 했다. (2)도 높은 산 아래서 새벽 서리 기운을 느끼며 계곡을 누빈 일을 풍류라 했다. “이끼 낀 돌길에 덧집 한 채에, 내왕하며 풍류 즐기는 한 소년. 산꼭대기엔 누각 지어 예쁜 달을 맞이하고, 시냇가엔 못을 파서 하늘빛을 담는다”<sup>29)</sup>, “귀중한 유다(濡茶) 마시고 어이 답례 없을쏜가. 공에게 맛있는 봄 술을 빚으시라고 권하고, 차와 술을 마시며 한평생을 보내면서, 오락가락하며 이 같은 풍류 시작하세”에서도<sup>30)</sup> 산꼭대기 누각에서 달을 맞이하고, 시냇가에 못을 파서 하늘빛을 담으며, 이끼 낀 돌길과 초가집을 오가는 생활이나 차와 술을 즐기는 전원생활을 왕래풍류라 했다. 퇴계도 “오직 바라는 것은 귀향의 뜻을 이룰 수 있어, 도산에 초가집 짓고 공(公)들과 함께 자연을 오가며 여생의 빛이나 갓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sup>31)</sup> 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도산 골짜기에 초가집을 짓고 자연을 오가는 생활을 왕래풍류라 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산십이곡>의 풍류는 자연과 조화롭고 친화하는 입장에서, 인생과 자연과 예술은 별도의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같은 길이라는 인식을<sup>32)</sup> 담고 있다.

(3) “나는 늘 오래된 질병이 끊일 날 없어, 비록 산에 살아도 마음대로 글을 읽지 못했다. 깊은 근심에 바르게 앉아 숨을 고르다 보면, 때로 온몸이 맑고 깨끗해진다. 우러러 우주를 굽어보다 느낌이 이어지면 책을 놓고 지팡이를 끌고서 나가 난간에 올라 연못을 감상한다. 단에 오르고 사당을 찾으며 발을 돌려 약초를 심고, 숲을 헤치며 꽃을 따거나 혹은 바위에 앉아 물장난을 치고 대에 올라 구름을 바라본다. 혹은 물가에서 고기를 보고 배 안에서 갈매기와 친구하며 마음대로 노닐다가 눈에 띄게 흥이 생기는 좋은 경치를 만나면 한껏 즐기다 돌아오는데, 방 안은 쓸쓸하고 책만 벽에 가득하다.”<sup>33)</sup>

29) “蒼苔石逕一茅堂 來往風流有小郎 峯頂構樓邀好月 溪邊鑿沼納天光.” 徐居正, 「題兎山村墅 四首」, 『四佳集』 卷3; 『文叢』 10, 274쪽.

30) “餉名濡茶可無謝 勸公早釀春酒旨 喫茶飲酒遣一生 來往風流從此始.” 李奎報, 「雲峯住老珪禪師 得早芽茶示之 予目爲濡茶 師請詩爲賦之」, 『東國李相國文集』 卷13, 古律詩; 『文叢』 1, 425쪽.

31) “惟願得遂歸 願結茅陶山之谷 與梧老及公輩 來往風流 少償餘年之債足矣.” 李滉, 「答李大用」, 『退溪集』 卷27; 『文叢』 30, 138쪽.

32) 辛恩卿, 앞의 책, 78-79쪽 참조.

33) “余恆苦積病纏繞 雖山居 不能極意讀書 幽憂調息之餘 有時身體輕安 心神灑醒 俛仰宇宙 感慨係之 則撥書攜筇而出 臨軒玩塘 陟壇尋社 巡圃蒔藥 搜林擷芳 或坐石弄泉 登臺望雲 或磯上觀魚 舟中狎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 則一室岑寂 圖書滿壁.” 李滉, 「陶山雜詠并記」, 『退溪集』 卷3; 『文叢』 29, 103쪽.

퇴계는 책을 읽다가 지팡이를 짚고 난간에 올라 연못을 감상한다. 단에 오르고, 약초를 심고, 숲을 헤치며 꽃을 따고 바위에 앉아 물장난을 치고, 물가에서 고기를 보고 배 안에서 갈매기와 놀며, 좋은 경치를 만나면 즐기다 방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이와 같이 퇴계는 공부하다 자연을 오가는 여유로운 삶을 왕래풍류라 했다. 도산서원 주변은 왕래풍류에 맞춘 공간이다. 서원 주변 경관을 천연대(天淵臺), 천광운영(天光雲影)이라 이름붙이고, 평생 즐겨 완상하겠다고 방을 완락재(玩樂齋)라 한 것도<sup>34)</sup> 같은 맥락이다. “천운대 도라드러 완락재 소쇄흔디, 만권생애(萬卷生涯)로 한없이 즐거운 가운데 “왕래풍류를 닮아 뜨스홀고”는 자연과 서원, 서실을 오가는 한없는 기쁨을 담았다. 유학자들이 즐겨 외던 진백(陳柏)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에 “글을 읽다가 틈이 생기면, 이따금 한가로이 완상도 하고, 정과 신을 발산해 퍼기도 하고, 정과 성을 쉬면서 기르기도 할지르다”라는 대목이 있다. 퇴계도 이러한 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sup>35)</sup>

퇴계의 풍류는 “그대는 보지 못했다. 왕자유(王子猷)는 한평생 대를 사랑하여 / 소쇄한 그 풍류로 속세와 인연 끊었다네. / 하루라도 대 없이는 참을 수 없어, / 갖가지 초목들에게 와서 엎드려 기어가게 한다네”<sup>36)</sup>와 흡사한 점이 있다. 퇴계는 “늘 아름다운 산수,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 있으면 혹은 술병을 들고 혼자 가거나 벗들과 함께 가서 노는데 여기저기 거닐며 읊조리다가 하루가 다 지나 돌아오곤 한다. 이 모두는 심흥(心興)을 활짝 열어주고 정신을 말끔히 씻어주어 성정을 기르는 한 가지 일이 된다”<sup>37)</sup>라 했으니, 퇴계에게 왕래풍류는 학문과 수양의 일부분이었다. 제자 조목(趙穆)은 퇴계의 풍류를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빠르고 상쾌하였으며, 풍류는 맑고 초탈하여 언제나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 조용하고 아득한 곳을 만나면 술병을 들고 홀로 가거나 벗을 불러 함께 놀았는데, 거닐면서 온종일 시를 읊다가 돌아왔다”, 퇴계의 풍류는 모두 가슴을

34) 李滉, 『陶山雜詠并記』, 『退溪集』 卷3; 『文叢』 29, 102-105쪽.

35) “夙興夜寐箴 亦謂讀書之暇 間以游泳 發舒精神 休養性情 皆此意也,” 李滉, 『答李平叔』, 『退溪集』 卷37.

36) “君不見子猷平生酷愛竹 蕭灑風流真絕俗 一日不可無此君 坐令百卉來匍匐,” 李滉, 『郡齋移竹』, 『退溪集』 卷1; 『文叢』 29, 70쪽.

37) “每遇佳山麗水幽閒迥絕之處 則或攜壺獨往 或命侶俱遊 徜徉嘯詠 終日而歸 皆所以開豁心胷 疏滄精神 資養性情之一事.” 『退溪先生年譜』 卷3, 附錄 言行總錄; 『文叢』 31, 243쪽.

열고 정신을 맑게 하여 성정을 기르는 한 가지 일로서, 한가하게 경치를 구경하고 숲과 냇물에 마음을 잃는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던 것이라<sup>38)</sup> 했다.

#### 4. “고인(古人)를 못 봐도 녀던 길 알쩍 잇너……”(言學3)

〈도산십이곡〉 언학3의 ‘고인(古人)’이란 “작품에서 요순우탕문무주공 공자(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로 전해지는 학문에 바탕을 두고 주자(朱子)를 존중하여 궁행성도(躬行聖道)의 결의를 노래하였다. 그러므로 고인은 순(舜), 주문왕(周文王), 정자(程子), 주자(朱子)라 할 수 있다”는 견해도<sup>39)</sup> 있고, “주자는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며, 동시에 천하 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받드는 스승”<sup>40)</sup>이라 하였으니, 이 ‘고인’과 ‘피미일인(彼美一人)’은 주자를 향한 퇴계의 깊은 그리움을 담았다는 설명도 있었다. 한편 “미인이 고인일 수는 있었으나 주자로 못 박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이종묵), “미인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 또는 그 지향”(정민)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랑과 연모의 대상이 구체적임을 들어 ‘미인=고인=주자’로 특정하기도 한다.<sup>41)</sup>

(1) “등불을 돌우어 비추며 책을 읽으려니 / 입아귀에 물결치듯 은하수 기우네. / **고인은** 날 버리고 기다리지 않았으나 / 부족한 사람이라도 마음은 한가지라. / 어찌 평생에 믿음 굳은 벗을 얻어 / 심오한 이치의 옥 열쇠로 닫힌 빗장 열어볼꼬.”<sup>42)</sup>

(2) “소백산 남쪽 옛 순흥 고을 터에 / 차가운 죽계 물살 흰 포말을 내뿜고, / 인재 길러 도를 지킨 공 그 얼마나 높은가. / 사당 세워 현자 모신 일 일찍이 없었네. / 덕을 사모하고 우러르는 인재들 저절로 많이 오니, / 숨어 덕을 닦는 건 출세 위함 아니로다. / **고인을 못 봐었으나 그 마음은 보았으니** / 네모난 연못에 달빛 비쳐 얼음인양 싸늘하이.”<sup>43)</sup>

38) “襟懷飄灑 韻度清越 每遇佳山麗水幽閒迥絕之處 則或携壺獨住 或命侶俱遊 徜徉嘯詠 終日而歸 皆所以開豁心胸疏滄精神資養性情之一事 非偷閒玩景 放意林泉之比也。” 趙穆, 『退陶先生言行總錄』, 『月川先生文集』 卷10(韓國國學振興院, 2004), 546쪽; 李鍾虎, 『퇴계학 에세이 溫柔敦厚』(아세아문화사, 2008), 131-132쪽 참조.

39) 손오규, 「도산십이곡의 自然」, 『조선조 시가의 존재양상과 미의식』(보고사, 1999), 272쪽.

40) “古人不云乎 不敢自信而信其師 朱子吾所師也 亦天下古今之所宗師也.” 李滉, 『答奇明彦 論四端七情第二書』, 『退溪集』 卷16.

41) 한형조, 『왜 조선 유학인가』(문학동네, 2008), 278-288쪽 참조.

42) “挑燈照我簡編讀 口角瀾翻銀河傾 古人去我不待我 芻豢悅口同性情 安得平生金石友 重玄玉匙開鍵局.” 李滉, 「夜起有感」, 『退溪集』 卷1; 『文叢』 29, 60쪽.

(1)에서 “고인은 날 버리고 기다리지 않았으나 […] 심오한 이치의 옥 열쇠로 닫힌 빗장 열여 불꼬”에는 “한스러운 일은 일생에 덕 높은 스승 못 만나서, / 이 마음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었네”<sup>44)</sup>, “책에는 영원한 가치 전하니, / 독서가 쉽지 않음을 알겠노라. / 책 속에서 성현을 대하니 / 말씀하신 것마다 모두 내 일일세”<sup>45)</sup> 담긴 감정 그대로 퇴계가 학문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으나 덕이 높은 스승을 만날 수 없어 오로지 책 속에서 길을 찾는 모습을 그렸다. 옛 현자들이 남긴 책을 보며 진리를 탐구하다가 문득 깨닫는 내용이 있으면 혼연히 설레고 즐거워지는 학자의 마음이다. (2)에서는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사당에 모셔진 주자, 안향 선생 등을 비롯한 여러 현자·성인을 두고 ‘고인’이라 칭했다. “고인을 못 뵈었으나 그 마음은 보았으니”에는 유학의 도를 높이고자 하신 고인의 크고 높은 뜻을 이어받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 “마침내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고 몰두했는데”, “비록 터득한 것이 있기는 해도 다만 공부가 부족하여 늘 마음먹은 데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 “다만 학문이 고인에게 미치지 못하니 이로 인해 송구하다”<sup>46)</sup> 하기도 했다.

퇴계 선생이 “고인이 말하기를, 감히 자신을 믿지 못하고 스승을 믿는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믿을 만한 스승이 없으니 성현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이다. 성현이야 분명 사람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 하셨다”(이덕홍)<sup>47)</sup> 이는 정자(程子)의 말이다. 율곡의 “고인이 말하기를, 궁색하면 그 행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가난하면 그 취하지 않을 것을 볼 것이라”<sup>48)</sup>에서

43) “小白南墟古順興 竹溪寒瀉白雲層 生材衛道功何遠 立廟尊賢事匪曾 景仰自多來俊碩 藏修非爲慕鶯騰 古人不見心猶見 月照方塘冷欲冰.” 李滉, 「白雲洞書院 示諸生」, 『退溪集』 卷1; 『文叢』 29, 69쪽.

44) “恨未一生逢有道 此心無路訂千年.” 李滉, 「清明溪上書堂 二首 中 1首」, 『退溪集』 卷2; 『文叢』 29, 78쪽.

45) “書傳千古心 讀書知不易 卷中對聖賢 所言皆吾事.” 李滉, 「金愼仲挹清亭十二詠 讀書」, 『退溪集』 卷5; 『文叢』 29, 160쪽.

46) “但自少才氣有餘 肆力文翰 遂致意於聖賢之學 中年以來 雖有所得 只以工夫不及 常恐不副素志 凜凜然日以省惕焉 若於函丈之間 接承古聖賢顏回 有所商論 則吾亦無愧 但事業不及於古人 是用悚惕 雖然 天假之以年 優遊於林下 得與學者 講究其終始 則此亦一大幸也 而病已至此奈何.” 奇大升, 高峯先生年譜 隆慶 6年 壬申(1572), 先生 46세; 『文叢』 40, 13쪽.

47) “先生嘗言 古人云 不敢自信 而信其師 今者 無師可信 須信聖賢之言 聖賢必不欺人.” 李德弘, 「教人」, 『退溪先生言行錄』 卷1, “古人不云乎 不敢自信 而信其師.” 李滉, 「答奇明彦 論四端七情第二書」, 『退溪集』 卷16.

48) “古人曰 窮視其所不爲 貧視其所不取.” 李珥, 『栗谷全書』 卷27, 제8장 居家.

고인은 전국시대 이극(李克)이다.

(3) “내가 보건대 옛날 성현이 사람에게 공부하는 것을 가르친 뜻은 어느 것 할 것 없이 의리를 강명(講明)하여 그 몸을 닦은 뒤에 이를 미루어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었으니, [...] 요즘에도 학교에 규정은 있지만 학문에 대한 기대가 너무 천박하고, 그 규정도 딱히 고인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당(堂)에는 더 이상 그 규정을 쓰지 않고, 특별히 성현들이 사람들에게 학문하는 것을 가르친 바의 큰 근본을 취하여 위와 같이 조목조목 열거하여 현판에 게시한다.”<sup>49)</sup>

위에서 고인은 큰 가르침을 주시는 성현과 같다. 그러므로 퇴계가 <도산십이곡> “고인을 못 봐도 녀던 길 알퐁이닌 .....”에서 ‘고인’은 특정한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주자·정자·안향을 비롯하여 유학의 도를 지켜온, 높은 뜻을 지닌 성현(聖賢)·성인(聖人)”을 두루 일컫는다.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다고 한 것은 퇴계가 성현들이 이룬 학문과 도(道)의 세계를 좇아 매진하겠다는 다짐이면서 선비들을 향한 권고이기도 하다. “성현의 글에는 천고의 마음 전하니, / 책 읽기란 쉽지 않음을 알겠노라. / 책 속에서 성현을 대했으니 / 말씀 하나하나 내가 행할 일일세”<sup>50)</sup> 성현의 뜻을 이으려는 퇴계의 마음이 담겨 있다. 주세붕은 학문이 해박하고 후덕하고 인자하여 향교를 열어 명유(名儒)들을 성실하고 신의 있게 가르쳤으니 고인의 풍도가 있다 했<sup>51)</sup>, “높고 높은 오천(烏川) 정포은은 / 비록 죽어가도 그 지조 변함없었고, / 뒤 이은 점필재는 쇠퇴한 문운(文運)을 일으켜 / 도 구하는 이들이 그 뜰에 가득했네. / 쪽에서 청색이 나왔으니, / 김(金)과 정(鄭)이 스승을 빛냈도다. / 일찍이 그 문하에 미치지 못했기에, / 나를 위로하며 못내 아쉬워하노라”<sup>52)</sup> 정몽주나 김종직 등을 스승으로 모시지 못

49) “烹竊觀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 莫非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 [...] 近世於學有規 其待學者爲已淺矣 而其爲法 又未必古人之意也 故今不復施於此堂 而特取凡聖賢所以教人爲學之大端 條列如右 而揭之楣間.” 李滉, 「進聖學十圖筭 并圖 第五白鹿洞規圖 洞規後敘」, 『退溪集』 卷7; 『文叢』 29, 206쪽.

50) “書傳千古心 讀書知不易 卷中對聖賢 所言皆吾事.” 李滉, 「讀書」, 『退溪集』 卷5; 『文叢』 29, 160쪽.

51) “世鵬 博文慈祥 大修鄉校 教誨懇至 名儒多聚學 爲治 務以誠信 有古人之風.” 『중종실록』 37년(1542) 임인 윤5월 5일 2번째 기사.

52) “吾東號鄒魯 儒者誦六經 豈無知好之 何人是有成 矯矯鄭烏川 守死終不更 佔畢文起衰 求道盈其庭 有能青出藍 金鄭相繼鳴 莫逮門下役 撫躬傷幽情.” 李滉, 「和陶集飲酒二十

한 아쉬움을 토로했으니, 퇴계가 말한 ‘고인’의 범주에서 이들을 제외했다 말하기 어렵다.

### 5. “당시(當時)에 녀던 길을 몇 회를 비려 두고 [...] 년의 모습 마로리”(言學4)

‘당시에 녀던 길’은 “30대의 젊은 시절에 처음 시작했던 『심경』 공부라고 할 수 있다. 『심경』 공부를 통해 ‘감발흥기(感發興起)’했다는 심경후론의 진술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sup>53)</sup> ‘녀던 길’을 좀 더 구체화한 논의도 있었다.

‘당시(當時)’는 그때이고, ‘녀던 길’은 하던 공부이니, 벼슬 때문에 하던 공부를 몇 해를 버려두고 있다가 이제야 돌아왔으니 다른 마음을 갖지 말자는 다짐이다.

선생이 말씀하기를,

“내가 젊어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으니, 학문에 대한 공력(功力)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사우(師友)를 만나 의혹들을 물어서 풀 수 없었기 때문에, 도시 도리에 대한 투철한 식견이 없다. 그리고 학문이 넉넉하기도 전에 갑자기 벼슬에 오르게 되어 더욱이 본래의 과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 근년에 와서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읽고 나서 조금 보이는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어찌 감히 그 심오한 학문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金富倫)<sup>54)</sup>

젊어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노력했지만 공부가 충분하기 전에 벼슬을 받았으니 도리를 깨치지 못했다고 했다. 『주자대전』을 보고 조금 아는 바가 생겼으나 그 심오한 깊이를 알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적었다. 물론 이 말에는 퇴계의 겸양이 담겨 있을 것이다. “무릇 자리가 낮으면 책임이 가벼우므로 오히려 한번 나아가는 것이 옳으나 벼슬이 높으면 책임이 크기에 어찌 가벼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며<sup>55)</sup> 높은 벼슬은

首 中 16首」, 『退溪集』 卷1; 『文叢』 29, 74쪽.

53) 최재남,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보고사, 2003), 170쪽.

54) “先生曰 余自少 有志於學 不可謂無學問之功 然 不得與明師友 難疑辨惑於道理殊無的見 學未優而遽至登仕 則又不專於素業矣 自近年讀朱子大全 稍有見處 然 安敢測其門牆之深奧乎.” 金富倫, 『學問』, 『退溪先生言行錄』 卷1.

55) “蓋位卑則責輕 猶可一出 官尊則任大 豈宜輕進.” 金誠一, 『出處』, 『退溪先生言行錄』 卷3.

아에 고사했던 퇴계가 벼슬 때문에 학문을 게을리했을 것 같지도 않다. 퇴계가 “너던 길흘 몇 히를 버려 두고”라고 한 것은 “내가 젊을 때에 학문에 뜻이 있어서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면서 읽다가, 마침내 고질병을 얻어서 결국 병폐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에서와<sup>56)</sup> 같이 오로지 한마음으로 학문에만 전념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한 언급으로 보인다.

앞항의 (1)-(3)이나 “병들었다 핑계하고 한가한 객이 되어 / 깊은 곳 찾아와 속세의 삶 끊고 살린다. / 참으로 기쁜 곳을 알려고 할양이면 / 백수(白首)로 늙으면서 경서(經書) 안고 지내리”를<sup>57)</sup> 보면, 퇴계는 자연에 묻혀 책 속에 담긴 성현의 뜻을 새기며 학문하고, 속세와 인연을 끊은 듯 지내며 백발성성해질 때까지 경서를 안고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이었다.

그러므로 ‘당시에 너던 길흘 몇 히를 버려 두고’란 벼슬로 인해 젊은 날부터 뜻을 두었던 학문을 쫓 이어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너던 모습 마로리’는 이제 학문과 수양 이외에 다른 곳에는 힘을 쏟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내와 구름 아득한 산골에서 늙어가고, / 시냇물 빙 둘러 들판에 흘러간다. / 수많은 서적에 생애를 맡김이 기쁘고, / 마음먹은 일 같고 닦음에 즐거움이 인다. / 정녕 시승(詩僧)을 향해 말을 마오. / 정말 쉽이 아니라 노병인(老病人)의 쉽이러니”에<sup>58)</sup>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다.

## 6. “우부(愚夫)도 알며 흐거니 [...] 성인(聖人)도 못다 하시니”(言學6)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흡사하여, 고인의 가던 길이 앞에 있다지만 그 길은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며 “성인(聖人)도 못다 하시니 그 아니 어려우는가?”라고 할 만큼 그 길을 체득해서 밟아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끊임없는 학적 탐구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인데,

56) “先生嘗言 吾少時 有志此學 終日不輟 終夜不寐 遂得痼疾 迄未免病廢之人.” 李德弘, 「學問」, 『退溪先生言行錄』 卷1.

57) “因病投間客 緣深絕俗居 欲知眞樂處 白首抱經書.” 李滉, 「溪堂偶興 十絶」, 『退溪集』 卷2; 『文叢』 29, 79쪽.

58) “烟雲杳靄山間老 溪澗彎環野際流 萬卷生涯欣有托 一犁心事歎猶求 丁寧莫向詩僧道 不是眞休是病休.” 李滉, 「東巖言志」, 『退溪集』 卷1; 『文叢』 29, 62쪽.

퇴계의 학문과 수양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sup>59)</sup>

“어리석은 자가 즐거워하는 것을 통달한 사람은 오히려 슬퍼한다. 평범한 재주를 가진 자가 서둘러 모여드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도리어 꺼린다”에서<sup>60)</sup> ‘우부(愚夫)’란 “어리석은 사람, 우부, 소민백성(小民百姓)”, 즉 평범한 사람을 뜻한다. 퇴계 자신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을 칭하는 겸사다. 퇴계 자신도 젊어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공력을 다하니 『주자대전』을 읽고 조금 보이는 것이 있기는 했었지만 감히 그 심오한 학문의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다<sup>61)</sup> 하였다. 몰입하다 보면 길이 보일 듯싶다가 다시 한계를 알게 되는 것이 학문의 생리이다.

(1) 『주서』에 이르기를, “오직 성인이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광인이 되고 오직 광인이라도 생각을 충분히 하면 성인이 된다”고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천자께서는 모쪼록 유념하시어 생각을 살피소서.<sup>62)</sup>

(2) “군자의 도는 쓰임이 넓지만 그 속은 깊어서 모습을 알기 어렵다. 보통 부부의 어리석은 지혜로도 도를 알 수도 있지만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바가 있다. 보통 부부의 변변치 못함으로도 능히 도를 행할 수 있지만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행할 수 없는 바가 있다 [...] 군자의 도는 가까이하는 부부의 거실의 사이에서부터 멀리는 성인과 천자가 이를 수 없는 곳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바깥을 정할 수 없고, 그 작음이 안을 정할 수 없으니, ‘비(費)라고 이를 만하다.’<sup>63)</sup>

(1)은 『주서(周書)』의 말을 들어 성인이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광인이 되고, 광인이라도 생각을 충분히 하면 성인이 된다 하였으니 깊은 생각을 강조한 말이고, (2)는 “도(道)란 그 속이 깊어서 그 전부를 알기 어렵다. 어리석은 부부의 얕은 지혜로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성인(聖人)이라 할지라도 지극한 도의 경지에는 쉽게 이를 수 없다. 크고

59) 林炎澤, 「國文詩의 전통과 陶山十二曲」, 『韓國文學史의 視角』(創作과批評社, 1984), 59쪽.

60) “是以愚夫之所悅 乃達者之所悲也 凡才之所趨 乃大智之所去也.” 葛洪撰, 『抱朴子』 卷4, 外篇, 廣譬 第39.

61) “先生曰 余自少 有志於學 不可謂無學問之功, 自近年讀朱子大全 稍有見處 然 安敢測其門牆之深奧乎.” 金富倫, 「學問」, 『退溪先生言行錄』 卷1.

62) “周書曰 惟聖罔念作狂 惟狂克念作聖 伏願聖明留神省念.” 李滉, 「戊辰 經筵 啓筭 二」, 『退溪集』 卷7; 『文叢』 29, 197쪽.

63) “君子之道 費而隱 費用之廣也 隱 體之微也 夫婦之愚 可以與知焉 及其至也 雖聖人 亦有所不知焉 夫婦之不肖 可以能行焉 及其至也 雖聖人 亦有所不能焉 [...] 君子之道 近自夫婦居室之間 遠而至於聖人天地之所不能盡 其大無外 其小無內 可謂費矣.” 『中庸』 12장.

작음이 있는 도의 바깥과 안을 정할 수 없다” 하였다. (1), (2)에서 말하는 ‘생각’이나 ‘도’를 학문으로 바꾸어도 큰 문제는 없다. “성현의 글에는 천고의 마음 전하니, / 책 읽기란 쉽지 않음을 알겠노라. / 책 속에서 성현을 대했으니 / 말씀 하나하나 내가 행할 일일세”에서 볼 수 있듯이<sup>64</sup>, 퇴계는 넓고 크고 깊은 학문세계를 추구하는 삶이 쉽지 않음을 자주 토로하였다.

(3)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꾸준히 궁구하다 종종 마음에 얻는 바가 있을 적에는 문득 다시금 기뻐서 먹는 일도 잊었으며 혹시 합치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동학(同學)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래도 얻지 못하면 안달 나지만 도리어 억지로 통하려고 하지 않고 한쪽에 미루어두었다가 때때로 다시 꺼내어 마음을 비우고 골똘히 생각해 저절로 풀리기를 기다렸으니 오늘도 이렇게 하고 다음날에도 이렇게 하였다.”<sup>65</sup>

마음에 얻는 바가 있을 때는 그 즐거움에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얻지 못할 때는 안달이 나지만 또 억지로 통하려고 하지 않고 미루어두었다가 다시 풀어보는 일을 매일 반복하였다. 생각대로 잘 풀려 나갈 때도 있고, 콧 막히어 답답한 때도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문의 기본 속성인 셈이다. “첫 장의 ‘혹문(或問)’에서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중화(中和)와 위육(位育)은 성령(聖靈)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르침을 통해 그 경지에 들어간 자는 과연 중화의 공을 극진히 할 수 있다고 운운하며 편지로 깨우쳐주었는데, 어찌 중화를 극진히 하고도 오히려 위육의 공을 다하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위육에 가까워지는 것은 현인(賢人)의 공부이니, 비록 공을 이룬은 한 가지라 하였지만 신기한 변화나 신묘한 작용을 지극히 논하는 데에 이르게 되어 공자가 관대하게 해주면 따라와 고무되니 이 어찌 안자(顔子)나 증자(曾子)가 잠깐 사이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sup>66</sup> 성현(聖賢) 안자나 증자도 미치지 못하는 공자의 학문세계를

64) “書傳千古心 讀書知不易 卷中對聖賢 所言皆吾事.” 李滉, 「讀書」, 『退溪集』 卷5; 『文叢』 29, 160쪽.

65) “對案嘿坐 競存研索 往往有會于心 輒復欣然忘食 其有不合者 資於麗澤 又不得則發於憤悱 猶不敢強而通之 且置一邊 時復拈出 虛心思繹 以俟其自解 今日如是 明日又如是.” 李滉, 「陶山雜詠 并記」, 『退溪集』 卷3; 『文叢』 29, 103-104쪽.

66) “首章或問 陳氏曰 中和位育 聖神之能事 由教而入者 果能盡致中和之功云云 來喻云云 安有致中和而猶未盡位育 但庶幾乎位育者 賢人之學 雖曰及其成功一也 然至論神化妙

일컬음이다.

(4) 대개 보통 사람들의 배움이 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한번 그 어려움을 알게 되면 마침내 중단하고서 다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능히 의심하기도 말고 중단하지도 말며, 빨리 이루려고 절박할 적에 잘못을 범하지도 말고, 후회하다가 흔들려 지치지도 말고, 다만 연구하고 실천하기를 오래하여 점차 익숙하게 한다면 저절로 의미가 두루 미치고 안목이 트일 것입니다. 무릇 글을 읽고 이치를 궁구하는 일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늘 공부를 해야 하거늘 어찌 따로 공부할 곳을 구하겠습니까? 주자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공부해가다가 극도로 힘들고 알지 못하는 곳에 이르러야만 좋은 소식이 온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sup>67)</sup>

이에 대해 퇴계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제시한다.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학문에 매진하는 일이다. (4)는 어떤 것을 연구하고 아는 것은 몇 개월, 혹은 1, 2년의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능통하지 못함을 알고 더욱 노력하여 차근차근 수십 년 동안 노력해나간다면 어려운 공부라 할지라도 이루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학문을 하는 도리는 반드시 전일(專一)한 마음으로 장구한 기간에 걸쳐서 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들었다 나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말다가 하는 배움을 한다면, 학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자(朱子)가 등공(滕珙)에게 고하기를, ‘전일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 셋으로 갈라지거나 중단이 되면 그르치는 것이다’ 하였다.”<sup>68)</sup>

그러므로 <도산십이곡>의 “우부(愚夫)도 알며 흐거니 ……”는 “학문의 세계는 방대하여 오래 정진하지 않으면 이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얼마든지 성취를 이룰 수 있으니 너무 위축되거나 위압 되지 말고 학문에 매진하라”는 뜻이고, “성인도 못다 하시니 ……”는

---

用處 則孔子之綏來動和 豈顏曾所能遽及哉.” 李滉, 「答李叔獻問目 中庸」, 『退溪集』 卷14; 『文叢』 29, 377쪽.

67) “夫常人之學 所以每至於無成者 只緣一覺其難 遂輟而不爲 若能不疑不輟 毋以欲速而過於迫切 毋以多悔而至於撓奪 講究踐履 久久漸熟 則自當見意味浹洽 眼目明快 凡讀書玩理 隨時隨處 皆可以用工矣 安有晝夜之外 別求用工之地乎 朱子嘗曰 做到極辛苦不快活處 方是好消息來 正謂此也.” 李滉, 「答李宏仲」, 『退溪集』 卷35; 『文叢』 30, 299쪽.

68) “又曰 爲學之道 必須專一 悠久 然後乃成 而以一出一入之心 爲或作或輟之學 則學何由成 故 朱子告滕珙曰 專一悠久爲成 二三間斷爲敗.” 金誠一, 「論持敬」, 『退溪先生言行錄』 卷1.

“학문이란 오랫동안 공을 들이지 않으면 성과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니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정진하라”는 의미이다. 주자가 학문이란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추구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이니 중간에 둘 셋으로 갈라지거나 중단하면 그르친다고 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학문에 왕도가 없음을 <도산십이곡> 언학의 제6수에서 다시 확인해 준 셈이다.

### Ⅲ. <도산십이곡>의 의미와 성격

주자(朱子)는 “지(志)와 의(意) 가운데 지는 마음의 지향해가는 바가 변함없이 곧게 가는 것이고, 의는 또 곧 지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오고 가는 것이니 주장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sup>69)</sup> 퇴계도 “뜻(意)이란 사지(私智)가 숨어 다니면서 경영하고 왕래하는 것이고 지(志)란 하나로 똑바로 나가는 것이며 생각(慮)이란 서로 비교 검토하여 헤아리는 것이라” 하여<sup>70)</sup>, “배우려는 자가 처음에 무엇을 먼저 하여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뜻을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그 뜻하는 바가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답하였다(金睟).<sup>71)</sup> 퇴계의 <구지(求志)>나 <도산언지(陶山言志)>에서는 산에 은거하며 도를 깨닫고, 백성의 덕업을 구하고자 하는 뜻, 서당을 짓고 후학을 기르며 이름 숨기고 살고자 하는 뜻을 담았으니 퇴계가 도산에 사는 뜻과 지향을 그린 것이다.

<도산십이곡> 언지(言志)란 학문하는 선비가 “처음부터 끝까지 죽 유지해가야 하는 일관된 곧은 뜻”이다. 이에 따라 <도산십이곡> 전 6곡 언지 각 수의 주제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도산십이곡> 언지의 주제를 흔히 “도산서원 주변의 자연경관의 이름 다음”, “자연에 동화된 생활”이라 해왔다. 그러나 언지 6수는 이보다는 학문하는 선비의 이상적 지향점을 그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보는

69) “志意 朱子曰 志是心之所之 一直去底 意又是志之經營往來底 亦主張要恁地.” 李滉, 「答金而精」, 『退溪集』 卷29; 『文叢』 30, 178쪽.

70) “先生曰 意者 私智潛行經營往來底 志者 一直去底 慮者 對同磨勘底.” 李德一, 「講辨」, 『退溪先生言行錄』 卷1.

71) “問 學者之初 何者爲先 先生曰 立志爲先 然 觀其所志者亦何事.” 金睟, 「教人」, 『退溪先生言行錄』 卷1.

표1-도산십이곡 전6곡 언지의 내용 분석

<p><b>前6곡(言志)</b>  <b>학문하는 선비의 지향점</b>          [벼슬보다 수기(修己), 심성 수양의 학문, 정치적 이상, 우주의 오묘한 이치와 도(道)를 향한 정진] <b>지향</b></p>	제1수	정치현실에서 물러나, 자연과 벗하며 사는 즐거움	1) 치인(治人)의 위인지학(爲人之學) 보다는 수기(修己)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추구함 2) 향촌에서 수양· 학문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제2수	벼슬의 부담과 책임에서 벗어나 허물없이 사는 즐거움	
	제3수	성현들이 참된 학문과 바른 가르침을 깨달아가는 즐거움 <sup>72)</sup>	심성 수양, 선한 인성을 추구하는 학문적 지향
	제4수	유유(悠悠)한 향촌생활 중에 이상적인 정치현실을 꿈꿈 <sup>73)</sup>	‘덕치(德治), 군신의 조화’라는 정치적 지향점 제시
	제5수	현자(賢者)와 인재들이 현실정치보다는 퇴운(退隱)을 추구하는 데 대한 근심 <sup>74)</sup>	정치현실에 대한 근심, 학문의 외중에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
	제6수	사시(四時)의 무궁한 변화, 자연과 우주의 끝없는 도(道)와 이치	천지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기 위한 꾸준한 정진 강조

것이 타당하다. 나아감(進)보다는 물러남(退), 벼슬보다 수기(修己)를 우선하는 가운데, 성현이 남기신 바른 가르침을 깨우쳐가고, 우주의 오묘한 이치와 도(道)를 향해 정진한다는 지향점을 제시했다. 학문하는 중에도 정치현실에 대한 관심<sup>75)</sup>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과 당위를 강조하

72) 『朱子全書』나 『梅軒集』, 『退溪集』을 보면, 언지3 “淳風이 죽다하니 ……”는 출세나 과시를 위한 요식적 공부보다는 진정한 학문에 몰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황병익, 「도산십이곡의 의미 재고」, 『古詩歌研究』 29(韓國古詩歌文學會, 2012), 362-366쪽.

73) <도산십이곡>의 ‘彼美一人’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여기서는 『시경』이나 『연암집』의 기록을 근거로 ‘피미일인=周 文王’이라 한 견해를 따른다. 황병익, 위의 논문, 366-372쪽.

74) 『詩經』 小雅, 鴻鴈之什, 白駒에 “깨끗한 흰 망아지 내 밭의 싹을 먹었다 하여, / 밭을 동여매고 고삐를 죄어 아침이 다 가도록 곁에 두면, / 저 사람 현자(賢者)도 이곳에서 노닐 텐데!(제1수)”란 시 4수가 있는데, 임금은 현자를 좋아하건만 현자는 세상에 나와 벼슬하지 않음을 애석히 여긴 시다. 현자의 흰 망아지(皎皎白駒)를 잡아두고 현자를 곁에 두려는 심정을 그렸다. 좋은 벼슬을 내려도, 억지로 잡아도 현자를 잡아둘 수 없음을 표현했다(蓋愛之切而不知好爵之不足縻 留之苦而不恤其志之不得遂也, 『詩經集傳』 卷11). 이에 <도산십이곡> 언지 제5수의 “엇더타 皎皎白駒는 머리 밍숨 흐느고”는 자유로이 내왕하는 갈매기와 대조적으로, “벼슬도 마다하고, 정치현실과 동떨어져 자연에 물러나려는 선비들과 그 상황을 근심”한 것으로 읽고자 한다. 선비들에게 벼슬과 학문은 뗈 수 없는 양면인데 퇴계 또한 進보다 退를 고집했으니 이 구절 속에는 퇴계의自省과警戒와 탄식이 담겼다 하겠다. ‘엇더타’는 ‘머리 밍숨 흐느고’ 현실 상황에 대한 걱정과 한숨을 이르고 있다.

75) “퇴계 역시 유학 지식인인 한 修己와 治人의 통합이라는 지표를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때때로 국정이 이루어지는 현실 정치에 대한 상념이 마음 한편에 떠오르곤 했다. 이 작품의 갈매기와 白駒는 이황 자신의 두 가지 의식지향이며, 그중에서 아직 떨쳐내지 못한 후자를 먼저 나무라고 탄식하면서 한편으로는 연민을 느끼는 것이다.” 김홍규, 「古典文學 교육과 歷史的 理解의 원근법」,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과 성찰』(고려대학

는 것도 잊지 않았다.

〈도산십이곡〉 후6곡 언학(言學)은 “옥도 같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기 어렵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기 어렵다. 이런 까닭으로 예전에 왕은 나라를 세워 백성들의 임금노릇을 할 때 배움과 가르침을 우선으로 여겼다. 열명(說命)에 ‘사람이란 평생토록 학문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주석하기를, “전(典)은 좋은 책이고, 배움(言學)이란 공부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sup>76)</sup> 임금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쉽 없이 필요한 학문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근사록』 위학(爲學)에서는 배움이란 모름지기 도(道)로써 뜻을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도산십이곡〉 후6곡을 ‘언학’이라 한 것은 선비가 가져야 하는 뜻과 지향을 제시한 언지(言志)에 이어, “배움에 대하여, 또는 배우는 사람(선비)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작품 창작 의도를 밝힌 것”이라고 개념 정립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후6곡 언학의 각 수의 주제를 다시 정리하면 표2와 같다.

〈도산십이곡〉 후6곡 언학은 꾸준히 성현의 학문세계를 탐구해야 한다는 당부를 담고 있다. 귀와 눈을 열어 지혜를 구하고 진리를 터득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 오로지 한 가지 마음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했다. 성현도 못다 이룬 학문세계가 있으니 쉽다고 여겨 오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부족함 많은 퇴계도 매진해보니 알게 되는 학문세계가 있으니 어렵다고만 생각하여 쉽게 포기하지도 말라는 부탁을 담았다. 이는 자신에게 되뇌는 다짐이기도 하고, 후학들에게 꾸준한 정진을 독려하는

표2-도산십이곡 후6곡 언학의 내용 분석

<b>後6곡(言學)</b> <b>학문하는 자의</b> <b>비른 태도</b> (진리 추구, 꾸준한 정진) <b>제시</b>	제1수	학문하는 중에 풍류를 즐기는 기쁨	학문과 휴식의 병행
	제2수	귀와 눈을 열고 진리를 깨달음	진리 터득을 지향함
	제3수	성현의 학문세계를 좇음	꾸준한 학문 정진
	제4수	전일(專一)한 태도로 학문에 몰두함	학문 정진 결의 다짐
	제5수	변치 않는 본성, 꾸준한 정진	본연의 심성으로 학문에 정진
	제6수	쉽고도 어려운 학문세계에 침잠	꾸준한 학문 정진의 필요성

교 출판부, 2002), 320쪽.

76)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是故 古之王者 建國君民 教學爲先 兪命曰 念終始典于學 其此之謂乎 注典經也 言學之不舍業也 兪當爲說字之誤也.” 『禮記註疏』 卷36, 學記.

격려와 가르침이기도 하다. 즉, 언학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배움의 자세로써 쉽 없는 탐구를 강조하는 다짐과 가르침을 세세히 담았다. 이에 <도산십이곡>은 자신을 비롯한 선비들이 견지해야 할 삶의 지향점이나 가치를 제시하고, 선비란 일관된 자세로 쉽 없이 궁구해야 한다는 다짐과 가르침을 담은 시가이다.<sup>77)</sup>

퇴계는 <도산십이곡>에 온후돈후(溫柔敦厚)한 알맹이를 담고자 했다. ‘온유돈후’는 『예기』 경해(經解)의 “공자가 말한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가르침을 알게 된다. 그 사람됨이 온유돈후한 것은 시(詩)의 가르침이요 [...] 그 사람됨이 온유돈후하면서도 어리석지 않다면 시에 깊은 사람이라”<sup>78)</sup>에서 유래한 말로, 시와 사람의 품격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고 있다.

(1) “그대의 시를 자세히 보니, 요즈음 재미를 붙였는지 많이 진보한 것 같아 기뻐했다네. 다만 행간에 자랑하고 과시하며 스스로 기뻐하는 태도가 없지 않았고, 겸허하고 엄퇴(嚴退, 겸손하여 물러남)하는 ‘온후(溫厚)’의 뜻은 적어 보였네. 이 같이 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 덕(德)을 향해 나가는 공부를 하는 데(進德修業) 방해가 될까 봐 걱정스러웠다네.”<sup>79)</sup>

퇴계도 <도산십이곡>에서 온유돈후한 시의 품격을 존중했다. ‘겸허·엄퇴’ 등을 온유돈후와 동의어로 쓰고 있다. 인간품성의 이상적 경지를 우수한 인격미라고 본다면, 온유돈후는 바로 그 인격미가 형상적으로 체현된 상태를 말한다. 시는 지을 때 시인의 도덕적 수양을 강조한 것이다.<sup>80)</sup> 퇴계는 온유돈후를 유가의 심미기준으로 삼아 창작원칙으로 적용했다. 이에 퇴계는 “기이하거나 걱정적인 문예미를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세밀하게 관찰·조절하여 아정한 경계에 머물도록”<sup>81)</sup> 하고자 세계에 대한 감정을 조절·절제하여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했다. 퇴계가 <도산십이곡>을 지어 “아이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익히게

77) 황병익, 앞의 논문, 383쪽 참조.

78) “孔子曰 入其國 其教可知也 其爲人也 溫柔敦厚 詩教也 [...] 其爲人也 溫柔敦厚而不愚 則深於詩者也.” 『禮記』 제26; 經解.

79) “細看公詩 近覺有長進得趣味 可喜 但其間 不無有誇 逞矜自喜之態 而少謙虛嚴退溫厚之意 恐如此不已 終或有妨於進德修業之實也.” 李滉, 「與趙士敬」, 『退溪集』 卷23; 『文叢』 30, 62쪽.

80) 李鍾虎, 앞의 책, 81-85쪽 참조.

81) 위의 책, 93쪽.

하고 아이들 스스로 노래하게 하고 자신은 책상에 기대어 듣고, [...] 잠깐 동안 한 곡을 써서 상자에 갈무리해두고 가끔 꺼내어 즐기면서 스스로를 반성했으니<sup>82)</sup> 이는 <도산십이곡>의 온유둔후한 뜻을 곱씹고 살피어 자신을 돌아보려는 의도인 것이다.

퇴계는 <도산십이곡>을 통해 ‘탕척비린(蕩滌鄙吝)’하고 ‘감발융통(感發融通)’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사람이 저절로 가까워지는 유익함<sup>83)</sup> 추구한다고 했다. 이는 <도산십이곡>의 효용성과 창작의도를 드러낸 말이다.

(2) 성상께서 전교하시기를, ‘사(赦)라는 것은 하자(瑕疵)와 허물을 탕척(蕩滌)하여주는 것이다. 추론(追論)하여 죄를 주는 것이 옳단 말인가? 하물며 또 고신을 추탈한다면, 그것은 죄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였다.<sup>84)</sup>

(3) “탐탁(貪濁)하여 재물을 좋아하는 욕심은 계학(溪壑)과 같고, 비린하여 이익을 계산하는 마음은 호리(毫利)를 다투어서 이(利)가 있는 곳이면 무엇이든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습니다.”<sup>85)</sup>

위의 자료나 “달 대하면 번거롭던 마음이 안정되고, / 대 심으면 세속 먼지 끊기게 된다네. / 어찌 그대의 집엔 달도 보고 대도 심어 / 번거로운 맘 세속 먼지 모두 한꺼번에 모두 씻기네”를<sup>86)</sup> 보면, 탕척은 흠이나 허물 등을 깨끗이 씻어낸다, 또는 철저히 제거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재물이나 이익 등을 탐하여, 인색하고 도량이 좁은 마음을 ‘비린하다’ 하였다. 성수침(成守琛, 1593-1564)의 즐기에는, 그의 담박한 풍모, 소박한 생활자세,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남의 선함을 칭찬할 줄 알고, 의리로 결단할 줄 알며, 조용히 공부하는 가운데 시사에 대해 격분할 줄도 알고 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인물로 누구나 공경하고 사모했다고 극찬했다. 인격과 풍모를 갖춘 그의 미간만 봐도 비린이

82) 李滉, 「陶山十二曲跋」, 『退溪集』 卷43; 『文叢』 30, 468쪽.

83) “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李滉, 「陶山十二曲跋」, 『退溪集』 卷43; 『文叢』 30, 468쪽.

84) “上教乃曰 赦者所以蕩滌瑕咎也 追論罪之 其可乎 況又追奪告身 非抵罪而何.” 『문종실록』 1년(1451) 8월 22일 정해 1번째 기사.

85) “貪濁好貨之欲 有同溪壑 鄙吝計利之心 細入秋毫 利之所在 何所不爲.” 『성종실록』 25년(1494) 12월 12일 정묘 3번째 기사.

86) “對月令人靜煩襟 種竹令人絕塵俗 豈如君家對月兼種竹 煩襟俗塵俱蕩滌.” 許筠, 「竹月軒」, 『惺所覆瓿藁』 卷2, 附錄 蛟山臆記詩.

사라진다 했다.<sup>87)</sup> 여기서 비린이란 나누는 데 인색하고, 나의 이익만을 쫓는 응졸함이다. “함께 한가한 집에서 허백을 보았고, /오랫동안 벼슬 내놓고 시골에 묻혔다오. /좌상에 뛰어난 풍류 볼 적마다/흥중의 비루한 마음 없어졌네”<sup>88)</sup> “진실로 전일에 좋은 교훈을 들을 때는 마음에 얻는 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또 떨어져 있으니 비린이 싹듭니다. 다시 좋은 말씀을 주시어 저의 막힌 마음을 열어주시면 혜택이 참으로 크겠습니다”<sup>89)</sup>에서처럼<sup>89)</sup> 퇴계는 <도산십이곡>을 노래하는 풍류를 통해, 온후한 다짐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사소한 이익을 탐하거나 인색하고 도량이 좁은 마음까지 씻어버리고 완성된 인격을 추구하려는 했으니 <도산십이곡>은 부르는 이 듣는 이 할 것 없이 마음 수양의 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감발용통’은 <도산십이곡>의 또 다른 창작 의도이다.

(4) 황계옥이 아뢰기를, “풍속은 점차로 다듬어야 합니다. 도성 사람 중에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그 어미에게 먹여 병을 낮게 한 자에게 국가가 정문(旌門)을 내려 포장(褒獎)했었는데, [...] 제도(諸道)에 하유하시어 모든 사람들이 충효의 도리와 포장하는 본의를 알게 해서 착한 본성을 감발시킨다면 교화가 행해지고 습속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sup>90)</sup>

(5) 읽는 사람이 진실로 성상의 교훈을 본받아 먼저 경학을 밝히고 난 후에 『통감』으로 써 학문을 넓히고 『강목』으로 써 요약한다면, 본말이 겸하여 갖추어지고 안팎이 융통되어, 본체가 밝게 되고 쓰기에 벗어나지 않는 학문이 될 것이다.<sup>91)</sup>

시로써 성정(性情)을 음영하면 감발하여 흥기하는 바가 있다<sup>92)</sup> 하였다. (4)에서 충효의 도리나 착한 본성을 알게 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면 이에 스스로 감동하여 분발하는 것을 ‘감발’이라 하고, (5)에서 ‘용통’은 경학(經學)과 역사 등 서로 다른 학문 분야끼리 막힘없이 트이는 것이다. “공경을 존중하면서도 도의에 공을 들여, / 잊지 않고 도움도 없이 조금씩 융통해 가리. / 주염계(周濂溪) 태극도의 묘한 이치를 조금 아니, /오랜

87) 『명종실록』 18년(1563) 12월 26일 2번째 기사.

88) “共耽閑室觀虛白 久謝香塵踏軟紅 每觀風流傾座上 卽無鄙吝滯胸中.” 李奎報, 「次韻丁秘監和籠字詩來贈」, 『東國李相國後集』 卷5, 古律詩 89수.

89) “不佞昔承雅誨 心如有得 今又離群 鄙吝滋萌 復賜德音 以豁茅塞 則嘉惠良多.” 李德懋, 「潘秋慶 庭筠」, 雅亭遺稿 11, 書5, 『靑莊館全書』 卷19.

90) 『성종실록』 20년(1489) 5월 8일 을축 1번째 기사.

91) 『세종실록』 18년(1436) 7월 29일 임술 1번째 기사.

92) “詩章唱和 [...] 且其吟詠性情 有所感發而興起.” 『태종실록』 7년(1407) 3월 24일 무인 1번째 기사.

세월의 기쁨이 이와 같음을 비로소 알겠네<sup>93)</sup> “추구하는 것마다 이치를 깊이 캐고 추구하는 일마다 이행하여 오랫동안 쌓고 갈수록 상세하게 하여 막힘없이 통하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찾아낸다면 이른바 제일 큰 근본과 큰 핵심은 장차 저절로 찾아져 얻게 될 것입니다”<sup>94)</sup> 보면, 퇴계가 감발용통을 꾀한다 한 것은 <도산십이곡>을 부르는 가운데 가르침과 느낌이 두루 전해져 막힘없이 통하고 문득 자성과 깨우침에 이르게 되는 유익함을 기대한 것이다.

요컨대, <도산십이곡>은 겸손한 가운데 덕(德)을 향해 나아가는 온유돈후의 풍격을 추구한다. 자기성찰 속에 후학들에 대한 가르침을 유도하는 <도산십이곡>의 어조와 화법 또한 퇴계의 온후한 성정을 담았다. 언저에서 선비들이 견지해야 할 삶의 지향점이나 가치를 제시하고, 학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일관된 자세를 강조하였고, 언학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배움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숨어 덕을 닦는 건 출세 위함 아니로다. / 고인을 못 뵈었으나 그 마음은 보았으니”<sup>95)</sup> 출세보다는 학문하며 허물없이 사는 탕척비린을, 정치현실에 대해서는 비판보다 근심을 담아 온화한 시선을 담았다. 심성 수양, 선한 인성을 강조하는 자신의 학문적 지향이 노래를 통해 두루 감발용통하기를 바랐다. <도산십이곡>은 퇴계가 자기 마음을 다잡았다는 의미에서는 다짐의 시가요, 제자들이나 후학에게도 이 뜻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는 측면에서는 가르침의 노래이다. 이 다짐과 가르침이 현실의 이익을 탐하거나 인색하고 도량이 좁은 웅졸함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서로의 마음과 뜻이 통하여 상호 분발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즉, 꾸준한 학문 정진, 자연 속에서의 수양을 통해 천지와 우주 만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 완성된 인격을 추구하고 너그러운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이상을 담고 있다.

93) “主敬還須集義功 非忘非助漸融通 恰臻太極濂溪妙 始信千年此樂同.” 李滉, 『玩樂齋』, 『退溪集』 卷3. 李滉, 『玩樂齋』, 『退溪集』 卷3; 『文叢』 29, 105쪽.

94) “逐處研窮 逐事踐履 積久漸熟 以至於融通發見 則所謂大要大旨者 將不待作意求索而自得之矣.” 李滉, 『答李宏仲 乙丑』, 『退溪集』 卷35; 『文叢』 30, 306쪽.

95) “藏修非爲慕騫騰 古人不見心猶見 月照方塘冷欲冰.” 李滉, 『白雲洞書院 示諸生』, 『退溪集』 卷1; 『文叢』 29, 69쪽.

#### IV. 맺음말

초기 학자들이 〈도산십이곡〉 전6곡 ‘언지’는 “때를 만나고 사물에 응하여 일어나는 감흥을 읊은 것이고, 후6곡 ‘언학’은 “학문 수양의 심경을 읊은 것”이라 하고<sup>96)</sup>, “언지는 때에 느낀 정을 풀음이요, 언학은 배우며 몸을 닦는 마음을 읊조린 것”이라<sup>97)</sup> 설명한 이래, 전6곡은 “자연에 묻혀 사는 뜻”, “자연의 감흥”, “자연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을, 후6곡은 “학문 수양의 길과 자세”, “학문 수양의 길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담았다고 해왔다. 주제에 대한 시각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혼선도 있다.

언지와 언학은 〈도산십이곡〉 12수를 엮어내는 2개의 기본 취지이다. 그러므로 언지와 언학으로 나누어 6수씩 묶은 취지를 감안하고, 전체 작품끼리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좀 더 거시적인 주제 설정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도산십이곡〉의 구절구절을 실증적으로 풀이하고, 큰 관점에서 작품의 주제를 고찰해본 결과, 언지는 “학문하는 선비가 곧게 추구해야 하는 바른 지향점”을, 언학은 “학문하는 자가 견지해야 하는 올곧은 태도”를 그렸으니 〈도산십이곡〉 전체는 학문하는 선비들이 마음을 다잡는 일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퇴계는 일방적이고 하달적인 전달방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어조를 취함으로써 후학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퇴계는 〈도산십이곡〉에다 겸손하여 물러나는 겸허와 염퇴(斂退), 즉 ‘은유둔후’의 뜻을 담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사소한 이익을 탐하거나 인색하고 도량이 좁은 마음을 씻어버리는 ‘탕척비린’, 노래를 부르는 이와 듣는 이가 모두 막힘없이 통하여 감격하고 분발하는 ‘감발용통’을 추구했다. 이는 〈도산십이곡〉에 담긴 뜻이요 창작의 동기이니 퇴계는 이 노래를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마음을 수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후학들의 교육과 깨달음을 이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96) 趙潤濟, 『國文學史概說』(乙酉文化社, 1976), 79-80쪽.

97) 申瑛澈, 『古時調新釋』(東邦文化社, 1948), 88쪽.

## 참 고 문 헌

『擊蒙要訣』, 『擊壤集』, 『國語國文學資料辭典』, 『近思錄』, 『東國李相國集』, 『東坡全集』, 『孟子』, 『明齋遺稿』, 『明宗實錄』, 『文峯先生文集』, 『文宗實錄』, 『四佳集』, 『性理大全書』, 『惺所覆謁藁』, 『成宗實錄』, 『世宗實錄』, 『詩經集傳』, 『禮記註疏』, 『五峰集』, 『月川先生文集』, 『栗谷全書』, 『自省錄』, 『中庸』, 『中宗實錄』, 『芝山集』, 『清溪集』, 『太宗實錄』, 『退溪先生言行錄』, 『退溪全書』, 『退溪集』, 『抱朴子』, 『韓國文集叢刊』 卷29·卷30·卷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顯宗改修實錄』, 『璣齋集』.

김상진, 『16·17세기 시조의 동향과 경향』. 국학자료원, 2006.

김영숙, 「퇴계 시에 있어서 言志와 言學의 類型과 詩의 形象」. 『東亞人文學』 12, 東亞人文學會, 2007, 27-54쪽.

김홍규,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과 성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韓國詩歌研究』 11, 韓國詩歌學會, 2002, 195-230쪽.

\_\_\_\_\_,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震檀學報』 91, 震檀學會, 2001, 247-275쪽.

성낙은, 『고시조 산책』. 국학자료원, 1996.

손오규, 「도산십이곡의 自然」. 『조선조 시가의 존재양상과 미의식』, 보고서, 1999.

신영명, 『사대부시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6.

申瑛澈, 『古時調新釋』. 東邦文化社, 1948.

辛恩卿, 『風流 - 동아시아 美學의 근원』. 보고서, 1999.

이동구, 『예던길에서 시를 읽다』. 우공이산, 2010.

李東英, 「도산십이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_\_\_\_\_, 『儒家文學觀과 詩世界』. 釜山大學校出版部, 1997.

李鍾虎, 『퇴계학 에세이 溫柔敦厚』. 아세아문화사, 2008.

李泰極, 『時調概論』. 새글사, 1974.

\_\_\_\_\_, 『덜고 더한 時調概論』. 半島出版社, 1992.

全在康, 「도산십이곡의 理氣論의 根據와 內的 秩序 研究」. 『語文學』 70, 한국어문화학회, 2000, 217-241쪽.

趙潤濟, 『國文學史概說』. 乙酉文化社, 1976.

최재남, 『서정시가의 인식과 미학』. 보고서, 2003.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

최현재, 「도산십이곡의 창작 의도와 溫柔敦厚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학회, 2005, 169-195쪽.

한형조, 「幽貞 혹은 유교적 은자의 길」. 『퇴계학보』 111, 퇴계학연구원, 2002,

145-194쪽.

\_\_\_\_\_, 「李滉의 陶山十二曲」.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2, 휴머니스트, 2006.

\_\_\_\_\_, 『왜 조선 유학인가』. 문학동네, 2008.

황병익, 「도산십이곡의 의미 재고」. 『古詩歌研究』 29, 韓國古詩歌文學會, 2012,  
359-391쪽.

## 국 문 요 약

퇴계 이황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은 전6곡 언지(言志), 후6곡 언학(言學)으로 이루어진 총 12수의 연시조이다. <도산십이곡>은 겸손한 가운데 덕(德)을 지향하는 온유돈후(溫柔敦厚)의 풍격을 추구한다. 자기 반성 속에 후학들에 대한 가르침을 유도하는 <도산십이곡>의 어조와 화법은 퇴계의 온후(溫厚)한 성정을 담았다. 언지는 선비들이 견지해야 할 삶의 지향점이나 가치를 제시하고, 학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일관된 자세를 강조하였고, 언학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배움의 자세를 강조했다. <도산십이곡>은 퇴계가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다는 의미에서는 다짐의 시가요, 제자들이나 후학에게도 이 뜻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는 측면에서는 가르침의 노래이다. 이 다짐과 가르침이 현실의 이익을 탐하거나 인색하고 도량이 좁은 웅졸함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서로의 마음과 뜻이 통하여 상호 분발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즉, <도산십이곡>은 꾸준한 학문 정진, 자연 속에서의 수양을 통해 천지와 우주 만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 완성된 인격을 추구하고 너그러운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이상을 담고 있다.

**투고일** 2013. 3. 25.

**심사일** 2013. 3. 25.

**게재 확정일** 2013. 5. 8.

**주제어(keyword)**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Dosansibigok), 언지(言志, Eonji, emphasize will), 언학(言學, Eonhak, emphasize scholarship), 겸손(Humility), 후덕(厚德, Virtue), 굳은 뜻(Determination), 학문 정진(Lifelong learning), 온유돈후(溫柔敦厚, Soft heart & Warm searchings), 자기성찰(Self-reflection), 탕척비린(蕩滌鄙吝, Washing away the wrong mind), 감발응통(感發融通, Emotional communication), 인격 완성(Personality completed)

